

주님의 승천 축일에 관한 강론

(2020년 5월 28일 축일 / 5월 30일 주일 강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이별의 슬픔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뵈었고, 그분에게 말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떠나십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눈으로 주님의 승천을 이렇게 보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주님의 승천은 주님의 부활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장 행복한 사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온전히 완성되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독생자 하느님의 아들은 성모회보 소식 때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인간의 육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정녀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느님 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하느님의 아들은 계속해서 인간 본성과 연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으며, 이러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로 묻히고 부활 하셨으며 이러한 인성과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그분의 영광 안에 계십니다.

Αφού, λοιπόν, εμείς οι πιστοί είμαστε ενωμένοι με το Θεανθρώπινο Σώμα του Χριστού, με το οποίο ανελήφθη στους ουραμούς, είναι βέβαιον ότι ανεβάζει κι εμάς μαζί Του στους ουραμούς.

우리는 신앙의 신조인 "나는 믿습니다 ..."를 말할 때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이웃에게 전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하느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교회 신자들은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고 성체성혈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그리스도교 교인들을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같이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영광을 깨달았습니까? 불순종한 아담은 낙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은 우리의 인성과 연합하여 우리를 하늘의 낙원으로 데려가시려고 새로운 아담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요한 복음 14:2) 고 말씀 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신다는 것이며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요한 복음 14:3)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존대하는 자는 소중히 여겨주겠다.”(사무엘상 2:30) 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로의 권고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고린토전서 6:20).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가볍게 하느님의 은총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세상의 쾌락에 우리를 묶어두는 세상의 욕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안에서 깊이 깨달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가르치고 떠나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분과 함께 하늘로 데려 가기 위해 내려 왔습니다.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의 승천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기뻐하면서 축일을 지냅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첫 번째로 느꼈을 이러한 기쁨을 복음저자 루가는 복음경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가 24, 50-53) 이러한 축일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기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모습으로 승천하셨으니 우리의 부활과 승천도 실현 가능 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공격을 받아도 어떤 다른 다양한 공격에서도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쫓아 낼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비겁한 마음이 없습니다. 믿음과 희망이 있다면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승천 후 거룩한 사도들은 큰 기쁨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성을 입기를 받아들이셨고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